

차승원 “인간 김정호 연기 도전할 만 했다”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 일생을 바쳐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인 한 인간의 이야기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감독 강우석)는 일생을 바쳐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인 한 인간의 이야기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極高) 지도를 만든 한 ‘지도쟁이’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일에 매달린 사람이 상처 속에서도 꿋꿋이 나아가는 바로 그 곁을 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배우 차승원(46)은 이런 ‘고산자 김정호’를 놓고 누구보다 깊게 고민한 것처럼 보였다. 김정호를 연기하는 배우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의 고뇌는 단순히 한 영화의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꽤나 깊어보였다.

차승원은 “인간 김정호를 연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 그리고 잘 사는 삶에 대해, 자신보다 주변을 생각하는 삶에 관해 말했다. 차승원의 이런 말들은 ‘고산자 대동여지도’가 그리는 김정호의 모습, 그가 이 작품을 두고 했던 고민들과 겹치면서 어떤 진정성을 만들어내는 듯했다.

완성된 영화를 본 소감이 어떤가.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마지막 장면이 주는 한 방이 있다. 단점이라고 하면 영화가 너무 스트레이트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아무래도 전채판권이다 보니 영화화 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 많은 분들이 취할 수 있게끔 한 게 아닐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더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 마지막 장면이 신박하다.(웃음) 솔직히 내가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그러기는 싫으나 눈물이 훑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런 감정이 나쁜 게 아니고 또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기울었다.”

제작보고회 때와 사사회 후 간담회 때, 부담감에 대해 반복해서 말했다. 그 부담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또 그렇게 극심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김정호 선생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의 삶을 추측하면서 극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팩트'로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또 내가 연기하는 김정호가 관객에게 김정호 선생의 어떤 모습을 각인하지 않았나. 특히 어린 관객에게는 ‘고산자, 대동여지도의 김정호를 실제 김정호로 여길 수도 있는 노릇



배우 차승원(46)은 이런 ‘고산자 김정호’를 놓고 누구보다 깊게 고민한 것처럼 보였다. ‘김정호’를 연기하는 배우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의 고뇌는 단순히 한 영화의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꽤나 깊어보였다.

이다. 아예 사실이 아닌 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담감이었다.”

“그러니까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최소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

“논리적으로 추측해볼만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거다. 하지만 지금도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된다. 완전한 팩트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왜 이 작품을 택했나

“그보다도 중요했던 건 배우로서 내가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는지가었다. 위인으로서는 김정호 선생의 업적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김정호라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최근 영화들에는 한 인물에 대해 죽 밀고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 ‘허벤저스’처럼 여러 인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영화에 출연한다는 건 배우로서 한 번쯤 도전할 만했다.”

“인간 김정호를 어떻게 그리려고 했나.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유약한 인물이기도 하다.

“극 중에서는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인물이다. 실제로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한 그의 위대함은 이미 영화가 다 설명해준다. 어쨌든 간에 나는 연기를 해야 한다. 김정호라는 인간을 연기하는 거다. 그러면 된다. 다만 한 가지 설정은 있었다. 김정

호가 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여정을 떠날 때, 어떤 길은든 합치게 걷자는 것이었다.”

“영화 후반부 김정호의 결정적인 고뇌가 이해가 됐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아닌가.

“지도에 미친 사람’이라는 것 그게 이 영화의 색이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김정호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나 또한 고민이 많았다. 이 부분은 김정호의 캐릭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회피’를 선택했다고 봤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원작자인 박범신 작가도, 강우석 감독도 김정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우로서 김정호같은 사람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

“최근 나의 큰 관심사는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잘되고 있으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 주변에 눈길을 별로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를 둘러싼 사회를 보게 된다. 내 주변이 편해야 나도 편한 거 아니겠나. 김정호는 그런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가 왜 지도를 목판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한 게 아닌가. 이 분의 기록이 왜 남아 있지 않나. 그런 김정호 선생이 기록권 층에 붙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나 욕심이 있지만, 그걸 잠시 접어두고 주변 사람을 위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내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김정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삼시세끼’ 등 예능에서는 잘됐지만, 최근 영화에서는 다소 부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

“(웃음) 결과론적인 거다. ‘삼시세끼’가 잘 되니까 잘됐다고 하는 거다. 그 프로그램이 잘 될 줄 누가 알았나. 영화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이번 작품이 잘 되면, 잘 될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예전에는 ‘또박또박’ 계산적으로 생각했다. 정확한 계획을 세워 움직이려고 했다. 이제는 연기보다도 내가 살아갈 날을 더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고 연기에 대해 고민이 없다는 건 아니다. 난 배우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연기에 대한 욕심은 언제나 있다. 다만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애쓰지 않으려 한다.”

“이 영화, 이번 연기 차승원의 필모그래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도 다 부질없다.(웃음) 연기를 너무나 잘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배우나 다 똑같다.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도 ‘잘 살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 내가 잘 살면, 연기도 더 좋아질 거다. 현실이 연기의 자양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연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다”

/뉴스



우석대, 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 종합우승

우석대학교가 제39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에서는 메달잔치를 벌이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우석대학교 지난 1일 막을 내린 이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함께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총 8개의 메달로 대회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다.

우석대는 이 대회의 남자부에 출전한 권정훈(-54kg급), 임재훈(-63kg급), 이원경(-74kg급), 정진성(-80kg급)을 비롯해 여자부에서 노가영(-46kg급)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남자부에서 박병규(-63kg급)와 최희규(-68kg급)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으며, 여자 5인조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종합 우승과 함께 최상진 우석대 태권도학과장이 최우수 지도자상을, 금메달을 획득한 권정훈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는 등 대회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중·고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
개인전 1위·단체전 2위 등 우수한 성적 거둬

전북체육중·고등학교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에서 열린 ‘제3회 전국 근대 5종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1위, 단체전 2위, 릴레이 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개인전 1위를 차지한 형태국 선수는 올해 소년체전 및 전국대회 6개 대회 전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단체전 2위 형태국,강창훈,신은식,김유민(전북체육중) 선수가, 릴레이 신은식,김유민,최지웅(전북체육중) 선수가 3위를 차지하는 등 전북체육 중·고 학생들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선보여 좋은 성적을 거뒀다.

/김민근기자

리우패럴림픽, 인터넷에서 생중계 된다

오늘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2016 리우패럴림픽대회가 인터넷에서 생중계 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8월부터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회 정보, 선수단 참가현황, 역대 패럴림픽대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선수단 경기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인터넷 중계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네이버에서는 선수단의 주요 경기 하이라이트, 선수 인터뷰 등 VOD 서비스가 이뤄진다.

지상파 TV에서도 리우패럴림픽이 방영된다. KBS 1TV에서는 개회식을 8일 오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생중계한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